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1집  
조직신학편 pp.31-54

## 개혁신학 - 그 전통과 적극적 가능성

Reformed Theology -the Tradition and it's Positive Possibility

김 성 봉\*

### I. 서 론

종교개혁 478주년을 맞아 우리 학교가 표방하는바 개혁신학의 전통을 살피고, 나아가 그 적극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개혁신학의 전통을 살핌에 있어서는 먼저 그 기원과 발전을 논하고,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17세기 개혁과 신학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하여 살핀 다음, 마지막으로 개혁신학의 몰락과 그 재생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어 개혁신학의 적극적 가능성에 대하여 말함에 있어서는 먼저 오늘날 만연해 있는 성경관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안을 논하고, 다음으로 총체적 신학을 하나의 제안으로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삼중적 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 신학대학원 전임강사

1) 본 논문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종교개혁 기념강좌의 주제 발표논문임.

## II. 개혁신학의 전통

1974년 8월 19일자로 대신교단 총회의 이름으로 선언된 교회선언에서 “우리의 신학은 어느 개인신앙의 학적 표명이 아니고 교회성을 본질로 한 교회신조의 학적 석명(釋明)으로 본다”고 말하며, “단 칼빈 한 사람의 신학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세세의 역사적 교회가 신조, 또는 교회 신학자들의 저작 형태로 고백하여 온 진리 이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는 교회사 중에 하나의 선을 따라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져” 왔는데, “공동신조(세계신조)로부터 어거스틴, 루터, 칼빈, 베자를 거쳐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또는 개혁파 제신조에 의하여 표명되어지고, 더욱 19세기 이후에는 C. 하지, B.B. 워필드, A. 카이퍼, H. 바빙크, J.C. 메첸 등에 의하여 전개 변증되어 온 것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본인이 본장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이다. 위로 어거스틴, 칼빈, 베자를 거쳐서 아래로 하지, 워필드, 카이퍼, 바빙크, 메첸에 이르는 그 신학적 맥락을 살피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단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sup>3)</sup>고 천명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하여서도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 1. 기 원

개혁신학은 쾰빙글리와 더불어 시작한다.<sup>4)</sup>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는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 제 일권에서 교의학 문헌의 역사를 다루는 중 개혁주의 교의학의 역사를 다루었는데<sup>5)</sup>, 거기서 그는 바로 이 점을 천명하였다. 바빙크에 의하면, 쾰빙글리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근본사상들이 이미 현존하였다고 한다.<sup>6)</sup> 그러나 쾰빙글리는 그의 신학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는

2) 대신교단 교회선언 1장 1절 5항

3) 1장 1절 1항에서 “우리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제 신조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4)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 (Kampen, 1906), p.174.

5) 같은 책, 172-206면.

6) “그에게 근본사상들 즉 신학적 출발, 인간의 완전한 의존성, 예정, 그리스도의 인성, 교회와 성례의 영적인 견해, 종교개혁의 윤리적 정치적 의미 등이 이미 현존하였다”(바빙크, 같은 책, 174면).

데, 예를 들면 그의 인문주의 때문에 죄와 속죄화해를 너무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든가 그의 신령주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신적 의와 인간적 의, 성례에서 표와 표하는 사실 등을 추상적 이원론적으로 대립시켜 파악한 점 등이다. 그의 사상이 비록 판명성과 명료성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점을 메꾸지는 못하였다. 바빙크에 의하면, 그에게 있어서 다양한 근본사상들이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종합된 체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고 한다.<sup>7)</sup> 쾰빙글리의 의의는 후에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날 다양한 경향들이 그 안에 이미 곱들거리게 만든 그러한 시야배경을 구도하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겠다.<sup>8)</sup>

개혁신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사람은 단연 칼빈이다.<sup>9)</sup> 칼빈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신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고백적인 교리와 확고한 체계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신학은 이미 기독교 강요 제 1판에 확고히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바빙크에 의하면, 그 이후 비록 확대와 전개발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어떤 변경도 없었다고 한다.<sup>11)</sup> 그가 기꺼이 주장한 것은 기독교 종교의 객관성,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경, 교회와 성례에 대한 객관성 등이었는데, 따라서 그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재세례파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의 견해에는 단 하나의 금욕적인 면도 보이지 않는데, 쾰빙글리가 말한 육과 영 사이의 대립이라든가 루터가 말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대립 같은 것을 그는 이미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7) 같은 책, 같은 면.

8) 우리는 여기서 불링거(H. Bullinger)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빙크에 의하면 "칼빈과 불링거의 신학 사이에는 내용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차이도 없고 다만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사의 차이요, 엄밀한 신학적 출발과 언약론적인 출발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들은 항상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어 왔고 계속 이어 온 것이기에 개혁주의적인 것으로 공인된 것들이다(바빙크, 같은 책, 177면).

9) 필라델피아 개혁주의 교회 감독이었으며, 필라델피아 개혁주의 신학교 조직신학, 성경신학, 윤리학 교수였던 Robert K. Rudolf는 1948년 6월 23일에 칼빈주석의 영어번역 중 창세기 주석의 서문을 쓰면서, "신학적 문헌의 전문분야에서 그 어느 저자를 막론하고 개혁신앙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신 거룩한 교훈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면에 칼빈보다 더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저자는 없다"고 하였다. 기독교교리사를 쓴 J.L.니브는 "성직자이며 신학자인 칼빈은 쾰빙글리의 개혁운동으로부터 연유하는 개혁과 교회의 최초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당시에 그러한 개혁과 교회들은 불링거의 영도하에 있었으며 칼빈은 그들과 교리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니브/하이크, 기독교교리사, 서남동역, 서울 1992, 530면)

10) 그의 *Institutio(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는 1536년에 제 1판이 나왔으며, 이후 1559년에 이르기까지 5판이나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11) 바빙크, 같은 책, 174면.

루터나 쾰링어가 할 수 없었던 사상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체계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적인 삶과 결합시키는 것도 그는 잊지 않았다.

바빙크는 16세기 스위스의 교의학은 전체적으로 칼빈의 정신 안에서 다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베자(Beza), 페르미글리우스(Vermiglius), 무스쿨루스(Musculus), 아레티우스(Aretius) 등을 언급하였다.<sup>12)</sup>

## 2. 발 전

칼빈의 신학은 스위스로부터 프랑스로 확장되었으며, 16세기 후반에는 이미 네델란드에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칼빈의 신학은 또한 영국과 스코틀란드에도 들어갔으며, 독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프란시스 1세에게 바치면서 그의 조국 프랑스 내의 종교개혁을 기도하였다. 칼빈의 교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의 저서들은 불어로 번역되고 유포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자문과 위로를 찾았으며, 말씀봉사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제네바로 향하여 떠나곤 하였다. 바빙크는 이 세기에 뛰어난 프랑스 신학자들로 샹디유(Chandieu, +1591), 마르로라(Marlorat, +1562), 듀 뵈레시 모르나(du Plessis Mornay, +1623) 등을 꼽았다.<sup>13)</sup>

네델란드의 경우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이미 1560년에 화란어로 번역되었다. 이 시기의 뛰어난 개혁신학자들로 바빙크는 다테누스(Dathenus), 드 브레(de Bres), 모데(Modet), 마르닉스(Marnix), 하이다누스(Caspar Heydanus) 등을 꼽고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이미 1575년에 라이덴(Leiden)에 아카데미가 있었고, 프라네커(Franeker) 아카데미도 1585년에

12) 같은 책, 175면. 언급된 신학자들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Beza: *Tractationes theol.*(신학논총, 1570), *Peter Martyr Vermiglius: Loci communes*(보편 교의논제들, 1576), W. Musculus: *Loci. comm.*(보편 교의논제들, 1560, 1567), B. Aretius: *Theol. problemata*(신학문제들, 1579).

13) 이들의 저술로는 Chandieu: *'de verbo Dei'*(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de Christi sacerdotio'*(그리스도의 제사직에 관해서), *de remiddione peccatorum*(속죄에 관해서); Marlorat: *'Thesaurus S.Scripturae in locos comm. rerum et dogmatum'*(사실과 교의들의 보편논제들로 엮은 성경보전); du Plessis Mornay: *'Traite de l'Eglise'*(교회론 논고, 1578), *'Traite de la verite de la religion chretienne'*(기독교 진리에 관한 논고, 1581), *'Le mystere d'iniquite c'est a dire l'histoire de la papaute'*(부패의 신비, 교황주의의 역사, 1611) 등이 있다(바빙크, 같은 책, 같은 면).

세워졌는데, 라이덴에는 포이구에레우스(Feugueraeus), 다네우스(Danaeus), 사라비아(Saravia), 트렐카티우스(Trelcatius Sr.), 바스팅기우스(Bastingius) 및 유니우스(Junius)가 있었고, 프라네커에는 루베르투스(Lubbertus), 리디우스(Lydius) 및 네르데누스(Nerdenus) 등의 신학자들이 있었다.<sup>14)</sup> 이들의 신학적인 과제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재세례파와의 논전에 있었다.

칼빈의 가르침은 영국과 스코틀란드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과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를 통하여 기도되었던 영국내의 종교개혁과도 갈등을 일으켰다. 메리 여왕 아래서 박해를 피하여 대륙으로 피신왔던 종교개혁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칼빈, 불링거, 베자, 마르티르 등의 가르침과 친밀하게 되었고, 그들이 되돌아가게 되자 영국의 종교개혁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학들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가르쳐졌다. 이 당시에 장로교회적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는 캠브릿지 교수였던 토마스 카터라이트(Thomas Cartwright)였다.<sup>15)</sup> 그는 그가 가진 신앙적 주장때문에 1570년에 해임되었고, 1603년에 서거하였다.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칼빈의 가르침과 관계하여 보았을 때에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나, 스코틀란드에서의 종교개혁은 보다 성공적이었다. 존 낙스(John Knox, +1572)와 존 크랙(John Craig, +1600)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독일의 경우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사뭇 칼빈에 의존한다. 호젠(Gooszen) 교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구연구서들(1890, 1893)과 반 어트 호프트(Van 't Hooft)의 '불링거의 신학'(De Theol. van Heinlich Bullinger, 1888)을 통하여 그같은 사실이 잘 알려졌다고 바빙크는 말한다.<sup>16)</sup> 이 당시의 신학자들로 파레우스(Pareus), 우르시누스(Ursinus), 올레비아누스(Olevianus), 휘페리우스(Hyperius), 보쿠비누스(Boquinus), 라스코(a Lasco) 등을 들 수 있는데,

14) 바빙크, 같은 책, 같은 면. 이 시기에 나온 다양한 교의학적 편람들은 다음과 같다. Gellius Sneecanus(1540-1596): 'Methodica descriptio et fundamentum trium locorum communium S. Sr'(방법론적인 묘사와 성경의 세가지 교의논제들의 기초, 1584); Bastingius: 'Catechismus'(요리문답, 1590); Feugueraeus: 'Propheticae et apostolicae, i.e. totius divinae et canonicae Scripturae thesaurus'(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즉 모든 정경적인 성경들의 보전, 1574); Trelcatius: 'Loci Communes'(교의논제들, 1587); Junius: 'Theses Theologicae, Opera Omnia I'(신학테제들, 1592f.) 등.

15) 동시대의 인물로 엘리자베스 자문관인 Whitgift에게 람베스 9개항(9 lambbeth-artikelen)을 제출하였던 William Perkins(+1602), William Whitaker(+1595)을 기억하여야 한다.

16) 바빙크, 같은 책, 176-177면.

그 중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 의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되었으며<sup>17)</sup>, 그들 곁에는 엄격한 칼빈주의자인 잔키우스(Zanchius)가 활동하고 있었다.

### 3.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개혁교회사에 있어서 17세기는 그 전성기를 이미 지나 몰락의 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신학의 원리가 드러나 꽃을 피운 것은 극히 잠시 동안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의 개혁교회에서는 교의학이 스콜라적인 방식(schoolsche manier)으로 취급되었다.<sup>18)</sup> 그러나 스콜라적인 방법은 오랫동안 일치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학이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네델란드와 스위스 지역에 많은데 먼저 네델란드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살펴 보면 라이덴에 폴리안더(Polyander), 발레우스(Walaeus), 티시우스(Thysius), 리베투스(Rivetius)<sup>19)</sup>와 트리그란드(Trigland), 호른벡(Hoornbeek)과 프라네커에 마코비우스(Mavovius), 아크로니우스(Acronius), 아메시우스(Amesius), 스키타누스(Schontanus), 보거만(ogerman), 클로펜부르크(Cloppenburg), 아놀드스(Arnoldus)와 호로링엔에 라벤스페어거(Ravensperger), 고마루스(Gomarus), 알팅(H. Alting), 마레시우스(Maresius)와 우트레이트에 보에티우스(Voetius)<sup>20)</sup>, 에

17) 1563년에 작성된 이 문답서는 독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 중에 가장 인기있고 원숙하고 권위있는 것이다. 이 문답서는 이후 독일 전 지역 그리고 네델란드와 그 식민지, 스코틀란드,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모리비아, 보헤미아 등지에서 채택되었다. 1870년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이 문답서를 공인하였다.

18) 이러한 분위기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로는 *Trelcatius Jr. :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omnium S. Scr. institutio*(성경논제들의 학술적이고 방법적인 요강, 1604); *Nerdenus : Systema theol.*(조직신학, 1611); *Maccovius : Collegia theologica*(신학동인, 1623), *Loci Comm.*(신학보편논제들, 1626); *Fr. Gomarus : Opera theol. omnia Amstel.*(신학전집, 1664); *Gisb. Voetius : Disputationes sel. 5부, Ultrj.*(논쟁선집, 1648-59); *J.H.Alsted & Weisenburg : Theol. scholastica didactica, exhibens locos communes theol. methodo scholastica*(스콜라신학적인 방법으로 논제들을 제공하는 교시적인 스콜라 신학, 1618) 등을 들 수 있다(바빙크, 같은 책, 177면).

19) 이들 네 사람은 *Synopsis Purioris theologiae*(순수신학 통람)의 저자들인데, 이들은 순수 교리의 Synopsis를 작성하여 그 당시 17세기에 신학교재로 사용하였다.

20) 코케이우스와 싸움. 이후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각각 코케이우스파와 보에티우스파로 나뉘어 논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대세는 코케이우스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세니우스(Essenius), 마스트리흐트(Mastricht), 라이덱거(Leydecker) 등이며, 다음으로 스위스 지역에서는 로잔에 부카누스(Bucanus), 바젤에 볼레비우스(Wollebius), 제네바에 다네우스(Danaeus)<sup>21)</sup>, 투렌티누스(Turrentinus), 픽테트(B. Pictet), 쥐리히에 하이덱거(J.H.Heidegger)<sup>22)</sup>, 호팅거(J.H.Hottinger), 몽또방에 샴미에(Chamier), 베롤뜨(Berault), 가리솔르(Garissoles), 세당에 틸레누스(Tilenus), 듀몰랑(Dumoulin), 볼리에(Beaulieu), 바스나쥐(Basnage), 브롱넬(David Blondel), 부샤르트(Sam. Bochartus), 장 메스트레자(Jean Mestrezat), 샤르 드레랑쿠르(Charles Drelincourt), 장 다이(Jean Daille) 등이다.<sup>23)</sup> 여기에 샴르 신학자들인 까메로(Camero), 아미랄두스(Amyraldus), 카펠루스(Cappellus), 플라케우스(Placaeus) 등을 함께 열거할 수 있겠다.<sup>24)</sup>

또한 영국에서는 퓨리탄들 중에서 브라드쇼우(Bradshaw), 레이놀즈(Raynolds), 바인즈(Baynes), 바이필드(Byfield), 로저스(Rogers), 후커(Hooker), 화이트(White), 아처(Archer), 힐데스함(Hildesham), 데이번포트(Davenport), 라이트푸드(Lightfoot), 셀테누스(Seldenus), 트위스(Twissus),<sup>25)</sup> 칼라미(Calamy), 가다커(Gadaker), 박스터(Baxter), 베이츠(Bates), 메아드(Mead), 오웬(Owen) 등이 특별히 알려져 있다.<sup>26)</sup> 이 당시에 소위 '반-신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sup>27)</sup> 이들은 칭의의 근거를 다만 그리스도의 충분한 의 안에 세운 자들로서 크리스프(Crisp), 툴리(Tully), 이삭 손시(Isaac Chauncy), 이턴(John Eaton), 윌리엄 에어(William Eyre) 등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sup>28)</sup>

- 
- 21) 코케이우스를 비판하고 칼빈을 다시 세웠는데, 하이데거와 함께 17세기 개혁신학의 마지막 보루라 말할 수 있는 신학자.
- 22) 코케이우스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정통에 가장 가깝고 개혁신학의 전통을 정립한 신학자.
- 23)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낸 신학자들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 웨스트민스터 디바인들은 이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 24) 바빙크, 같은 책, 178면.
- 25)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의장이었음.
- 26) 이들은 주로 감독교회 입장을 취하는 퓨리탄들이다.
- 27) 이에 비하여 소위 '신율법주의자'들은 신앙 안에 칭의의 근거를 두며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 루터주의와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존 구드윈(John Goodwin), 리처드 박스트(Richard Baxter), 윌리엄스(Williams), 우드브리지(Benj. Woodbridge) 등이 그 사람들이다.
- 28) 이들의 저서로는 *Crisp: Justificatio paulina sine operibus*(행위없는 바울의 칭의, 1677); *Tully: Neonomianism unmasked*(얼굴을 드러낸 신율법주의, 1692); *lassc Chauncy: Alexipharmacon, a fresh antidote against neonomian bane*(알렉시파르마콘 즉 신율법주의의 해독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재, 1700); *John Eaton: The honeycombe of free justification by Christ alone*(오직 그리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더 풍부하고 강한 교의적인 생명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칼빈주의가 적절한 터를 발견하였고 엄밀하고 긍정적인 정신 안에서 발전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들로서는 롤록크(Rollock)<sup>29)</sup>, 존 웰쉬(John Welsh), 반 아이어(van Ayr)<sup>30)</sup>, 존 샤프(John Sharp)<sup>31)</sup>, 심슨(Simpson)과 패트릭(Patrick)<sup>32)</sup>, 윌리엄(Wolliam)<sup>33)</sup>, 아키벌트(Archibald)<sup>34)</sup>, 보이드(Boyd of Trochring)<sup>35)</sup>, 데이비드 칼더우드(David Calderwood)<sup>36)</sup>, 사무엘 러드포드(Samuel Rutherford)<sup>37)</sup>,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sup>38)</sup>, 베일리(Baillie), 딕슨(Dickson), 덜함(Durham), 스트랭(Dr. Strang), 제임스 우드(James Wood), 패트릭 길레스피(Patrick Gillespie), 휴 바이닝(Hugh Binning) 등이다.<sup>39)</sup>

바빙크에 의하면 이러한 개혁신학의 긍정적인 발전이 도르트회의 결정들(1618-19)<sup>40)</sup>과 웨스트민스터 고백과 요리문답(1646), 스위스 공동고백(Consensus Helveticus, 1675)<sup>41)</sup>, 발크의 신앙조항들(Walchersche artikelen, 1693)에서 그 절정과

스도로 말미암은 값없는 칭의의 蜂蜜집, 1642): *William Eyre : Vindiciae justificationis gratuita*(은혜로운 칭의의 소원, 1654) 등이다.

- 29) 그는 1583년 이래 에딘버러 대학의 총장이었고 바울서신들과 시편들, 다니엘서에 관한 주석들의 저자이다.
- 30) 그는 로마 카톨릭주의에 반대하여 썼다.
- 31) 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조화를 출판하였다.
- 32) 이들은 형제들로서 함께 교회사를 엮어내었다.
- 33) 그는 히브리어 액센트에 대해서 썼다.
- 34) 그는 일곱 개의 참회 시편에 대한 주석을 주었다.
- 35) 그는 소므르 대학의 교수였고, 1614년에 그래스고우 대학의 총장이 되었으며, 에베소 주석으로 유명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 주석에서 주석만 단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예정, 성육신, 죄, 세례 등에 관한 부설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 36) 그는 네델란드에 머물렀는데, 영국 국교회의 감독직에 반대하는 글인 *Altare damascenum* (다마스케누스 제단)을 썼다.
- 37) 그는 앤드류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의 저서로는 *Exercitationes apol. pro divina gratia*(신적 은혜에 대한 변증적인 시론들, 1637), *de Providentia*(섭리론), *Examen Arminianism* (알미니안주의 산문집), *The spiritual Antichrist*(영적 적그리스도) 등이 있다.
- 38) 그의 저서로는 *Nihil repondes*(무답론), *Male audis*(나쁜 평판에 대해서), *Aaron's Rod blossoming*(아론의 싹난 지팡이), *Miscellanies*(소논문집) 등이 있다.
- 39) 바빙크, 같은 책, 180-181면.
- 40)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알미니우스(Arminius)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점에서 개혁신앙으로부터 이탈하였는데, 예지에 근거한 조건적 선택, 무제한적 속죄, 부분적 타락,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은혜로부터의 타락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종교회의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 즉 소위 도르트 신경이 구체화되었는데,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등이 그 내용이다(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1984, 261면).



동시에 궁극점을 보았다.<sup>42)</sup>

우리가 이처럼 17세기의 개혁신학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보는데 비하여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며 비판적으로 본다. 이장식 교수는 “17세기의 신학자들은 개혁파나 루터교회를 막론하고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에 빠져 갔다”고 비판한다.<sup>43)</sup> 그같은 자세로 교리문제의 규명과 정의에 있어서도 문자적 정확성을 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이후에 이 때의 신학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흔히들 말하는 스콜라주의와 성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우게 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비판하되, 후자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겠다.

####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을 다루는 중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만나게 되는데, 대신교단의 교회선언에서도 “우리는 ... 제 신조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sup>44)</sup>고 명시하고 있다. 도대체 이 신앙고백이 어떠한 것이길래 한 교단의 신앙의 기준으로 고백되는가?

보통 알려진대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에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상당한 실력의 성경학자들) 3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기하여 약 5년 여에 걸쳐 완성한 것인데, 그 교리적 입장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전문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기본교리로 채택되었으며, 통상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여도록 요구되고 있다.<sup>45)</sup>

그렇지만 이 고백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존중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서가 장로교회 신학자들의 모든 신학적 입장들을 반영해 준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에는

41) 스위스의 신학자 사우무르(Saumur)와 그의 동지들의 수정주의적 칼빈주의 신학이 점점 성하여 갔을 때, 그곳의 보수파는 점점 더 엄격한 보수신학을 제창하게 되었는데, 이 신조는 쾰리히의 하이데거(J.H.Heidegger)가 스위스 국회의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이 신조를 가리켜 “17세기의 극단의 보수주의, 혹은 정통파”를 대표하는 것이며, “극단적인 보수주의 개혁교회 신학의 텍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장식 편역, 기독교신조사 II, 서울 1980, 107면).

42) 바빙크, 같은 책, 181면.

43)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2, 서울 1966, 323면.

44) 1장 1절 1항

45)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1989, 머리말 중에서.

다양한 입장들의 평형인 면도 있고, 모두가 찬성한다는 최선의 고백이라는 면도 있다.<sup>46)</sup> 소집 자체가 신학자들의 제안에 의한 소집이 아니었고 국왕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의회에 의한 소집이었으며, 참석대상자 중 다수가 빠지고 후에 보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백서 작성에 참석하였던 인물은 103명에 불과하였다.<sup>47)</sup>

의회가 총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종교의 순수성을 도모하고 좀 더 완전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였고<sup>48)</sup>, 특히 교회정치가 그 주된 이유였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켜보자는 시도로서 대륙의 개혁주의, 특별히 제네바의 개혁주의를 영국 땅에 처음으로 순수히 정착시켜 보자는 의도를 가졌다.<sup>49)</sup>

1642년 11월 5일 의회 앞에서 행한 설교<sup>50)</sup>를 보면, “에드워드 6세의 시기와 엘리자베드 여왕의 시대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진리의 순수성, 예배의 아름다움, 집행의 질서정연, 권징의 강점 등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적은 카톨릭주의자나 성공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들이 아니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적들은 다만 동인자인 사탄의 밀사들”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것들 뒤에 있는 간교한 계략들을 보았으며, 그로 인한 피흘림을 예견하였다.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개혁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 부르셨던 분도 하나님이지요, 그 안에서 주장하고 옹호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sup>51)</sup> 그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칼들을 회

46) 김영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 판”, 미간 논문 2면. 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미간 논문. 조지 길레스피는 주장하기를 다수를 이루는 강한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타락적 선택설에도 불구하고 타락후 선택설의 입장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47) 121명의 퓨리탄 성직자들이 그 총회에 초빙되었으나 그 모두가 그 총회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참석한 인물들은 대략 98명 정도였으며, 그 인물들도 몇 가지 부류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었다(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미간 논문).

48) 엘리자베드 여왕의 개혁이 에드워드 6세에 머물고 있다는 자각에서 좀 더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소집된 것임.

49) 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1995.2.7), 미간 논문.

50) 이 때의 설교자는 Matthew Newcomen(1600?-1669)이었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작성할 때에 Dr. John Allowsmith와 Dr. Anthony Tuckney을 도왔다고 알려 지고 있으며, 1662년 왕정복고로 인하여 추방되게 되었을 때 네델란드의 레이든으로 초대 되어 설교를 계속하였으며, 그 곳 개혁자들로부터 특히 호른벡(Dr. Hornbeek)으로부터 존경을 받다가 1668년 또는 1669년에 열병으로 소천하였다(E. Calamy & S. Palmer, The Nonconformist's Memorial, London 1775, I, 503).

51) Matthew Newcomen, The Craft and Cruelty of the Churches Adversaries.. London 1643. The Epistle Dedicatory(김영규의 미간 논문에서 재인용).

개의 명령으로 보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신론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즉 개혁의 주장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다. 또한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의 개혁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이 신론에 앞서 성경론을 고백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개혁의 방편과 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자세하면 할수록 그 무기는 정교한 무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신은 그들이 매번 하였던 약속과 맹세에서 잘 드러나는데, “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징조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며 그분의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정신으로 시작된 총회였지만 1163차례의 장기회 무기간 동안에 주제들에 대하여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분파성도 드러나게 되었다.<sup>52)</sup>

앞서 말했듯이 교회정치 개혁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중심적인 주제였는데, 이 회의의 구성원들이 혹은 장로교파, 혹은 독립교회파<sup>53)</sup> 또는 에라스투스파<sup>54)</sup>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개혁주의자들 혹은 칼빈주의자들이었기에<sup>55)</sup> 전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정치 및 예배모범은 장로교의 입장<sup>56)</sup>으로 확정되었

52) 김영규의 미간 논문, 4-5면.

53) 이들은 소위 브라운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감독정치를 강하게 배척하면서 감독의 인허없이 설교권을 갖고 장로교적인 정치도 배척하는 자들로서 청교도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이들은 모든 정치권이 각 분리된 회중에게만 속해 있되 목사는 다양한 교회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직되지 않는다 하였으며, 한 목사가 다른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대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에서 견책(censure)을 부정하고 권계(admonition)만 인정하였다. 그 당시 이들 가운데 Philip Nye가 유명하였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 소집인물들을 선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고 한다(김영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 판”, 미간 논문).

54)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학자요 의사인 Erastus의 견해에 따라서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교회정치제도를 특별히 제정하지 않았고 그 권위의 열쇠는 그리스도인 관원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에라스투스 자신은 하나님의 광범위한 섭리에 기초하여 그런 교회정치론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속정부의 권세는 오직 신적양도권에 기초하고 있고 내적인 경영자는 하나님이다. 그 때문에 외적인 경영자는 오직 관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영국 국교회는 다 에라스투스주의인 셈이며, 그 당시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힌 인물로는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와 콜만(Thomas Coleman)이 있다.

55)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장로교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샬(Syephen Marshal), 칼라미(Edmund Calamy), 영(Thomas Young), 뉴콤멘(Mathew Newcomen), 스펠스토우(William Spurstowe) 등이다.

다.<sup>57)</sup> 또한 이 고백서에는 칼빈의 신학 중에서도 루터주의와 싸우면서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확립된 칼빈주의의 모든 독특성들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학을 잘 드러나고 있다.<sup>58)</sup> 바로 이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천명한 대신교단의 교회선언이 그 아래 계속되는 ‘정치’ 부분에서 “교회정치에는 장로주의체제가 성서적 교회의 고유한 정체라고 믿는다”<sup>59)</sup>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sup>60)</sup>

골든 H. 클락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야말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작성한 것들 중에서 ... 하나님의 전 계획을 충분히 잘 진술한 신조”라고 말하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들은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학자들”이었으며 그 모임을 능가하는 모임은 여태껏 없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sup>61)</sup> 이에 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하여서도 스콜라적 성서 문자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없지 아니하다.<sup>62)</sup>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성경관에 근거한 그러한 비난들은 우리가 전수하고자 하는 성경관에 입각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하겠다.<sup>63)</sup>

56)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이란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칼빈 주의적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형적인 정신이다(비교, Thomas M’Crie, *The Life of Andrew Melville, Edinburg* (1819, I, 156ff). 김영규의 논문에서 재인용).

57) 김영규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결정되었던 것은 스코틀란드 총대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이 신앙고백이야말로 장로교의 처음이요 마지막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58) 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미간 논문. 루터주의나 재세례파 및 반율법주의에 반대하는 은혜언약의 통일성 문제와 율법의 제 3 사용이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 특성이요, 동시에 장로교 신학의 특성이 되고 있다.

59) 1장 2절 1항

60) 역사적 장로교의 입장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당시 에라스투스파에 반대하여 출판하였던 책인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 Government Vindicated*, (London 1646)와 미국 장로교의 최초 신학교요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미국 장로교 신학을 결정하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개척교수 중 한 사람이기도 한 사무엘 밀러(Samuel Miller, 1769-1850)의 ‘장로교주의’(Presbyterianism: *The Truly Primitive and Apostolical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Christ*, Philadelphia 1835)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61) 골든 H. 클락, “개혁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in: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역, 서울 1980, 364-65면. 그는 이 글에서 그 당시 미국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된 신정통주의를 자신의 신분을 교묘하게 위장하는 회의주의라고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이해가능한 기록계시의 바른 전수를 주장하였다.

62)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2」, 323면.

63) 여기서 우리의 성경관이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되었다고 하는 축자적 영감설인데 비하여, 저들의 성경관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거나 그렇게 믿는다

## 5. 물 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듯이 보였던 종교개혁의 신학은 그 꽃을 피우기가 무섭게 곧 쇠락해 갔다. 개혁주의 신학의 몰락의 원인은 다양한데, 스콜라주의적인 방법, 재세례파들과 소시니안주의, 데카르트주의, 코케이우스주의, 소무르학파, 브라운 운동<sup>64)</sup> 및 종교적 개인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이미 16세기 말쯤에 개혁주의 신학내에 스콜라주의적인 방법이 생겼다. 칼빈, 휘페리우스, 슌니우스 같은 개혁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교의들을 단순하게 취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와같은 단순한 취급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면서 중세시대 스콜라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던 의문들을 다시금 다루게 되었다. 마르티르, 사델(Sadeel), 유니우스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며, 잔키우스(Zanchius, +1590)나 폴라누스(Polanus, +1610)에게서도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sup>65)</sup>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재세례파들과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을 종교와 신학 안에 현실화시켰는데, 소시니안주의는 자연과 은혜의 로마 카톨릭적인 분리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자연이 은혜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였던 모순대당관계로 바꾸었다. 이들은 결국 자연을 위해서 은혜를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말았다. 이에 비하여 재세례파는 같은 근본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서로 조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며, 소시니안주의가 자연을 위해서 은혜를 버린데 반하여 은혜를 위하여 자연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이들 두 경향 모두가 주관주의, 권위의 단교, 인간의 자율성 등을 촉진하게 되었다.<sup>66)</sup>

이런 정신적인 경향들은 철학적 영역에서 데카르트주의와 결합하여 원리에 있어

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영감이나 부분영감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4) 청교도인들이었으며 개혁주의자들이었으나 급진적 분리주의자들이었다.

65) 이들의 저작으로는 Zanchius: *'De tribus Elohim'*(세 분의 엘로힘에 대하여), *'de natura Dei'*(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de operibus Dei'*(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de incarnatione'*(성육신에 대하여)(*Opera Omnia, 8 tomi, Geneve 1619*); Polanus: *'Syntagma Theologiae'*(신학총론)이 있는데, 이들 저서에서 그들은 교부들과 스콜라주의자들의 신학에 특별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바빙크, 같은 책, 177면).

66) 이처럼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는 가장 잘 만난다. 둘이 하나가 되어 성경을 파괴한다. 이들의 영향은 이후 17세기 초에 알미니안주의 안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서 모든 권위와 객관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며 전우주를 인식이론적으로 주관과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세워볼려고 시도하였다. 합리성을 주장하는 데카르트적인 방식이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성과 계시와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되었고, 이성이 계시로부터 해방되어 그 자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데카르트주의와 참으로 가까웠던 코케이우스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sup>67)</sup> 코케이우스주의 역시 전통신학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었고, 그후 세기말쯤에 곧바로 데카르트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코케이우스(Coccejus, +1669)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흔히 알려진대로 언약론<sup>68)</sup>이 아니라 그의 '언약론주의적인 방법'(foederalistische methode)이다.<sup>69)</sup> 이 방법론의 위험은 그것이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는 실체'(eeuwige, onveranderlijke substantia foederis),를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tijdelijke, historische oeconomia foederis)의 흐름 안에 떨어뜨리고, '되어지는 것'(worden)의 이념을 '하나님 자신'(God zelf)에게로 전가시키는 데 있다.<sup>70)</sup>

프랑스에서는 쇼무르 아카데미가 다양한 획기적인 입장들의 중심점이 되었다.<sup>71)</sup> 이들을 통하여 이신론과 합리주의가 준비되었는데, 카메로(Camero, +1625)<sup>72)</sup>,

67) 바빙크, 같은 책, 183면.

68) 언약론은 쾰빙글리, 불링거, 올레비아누스 등에게서 이미 제기되었고, 네델란드에서도 스네카누스, 고마루스, 그렐카티우스, 클로펜부르크 등에게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69) 바빙크에 의하면 코케이우스의 책 '언약에 관한 교리대요'(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1648)는 성경역사적인 교의학이었고, 성경을 원리로뿐만 아니라 교의학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성경신학을 정통신학과 대조시켰고, 언약을 聖定(decree)에, 역사를 이념에, 인간론적인 방법을 신학적인 방법에 대조시켰다.

70) 바빙크, 같은 책, 183면. 코케이우스에 대항하여 싸운 가장 강력한 적수는 보에티우스였는데, 결국 코케이우스파의 승리로 종결되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말크(Marck)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Merch, 1686, 네델란드역 1705)와 브라켈(Brakel)의 '합리적 신학'(Redel. Godsd. 1700)이 정통적 정신 안에서 썼던 마지막 교의학들이었으나, 이미 이전 분들의 힘에 비하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184면). 바빙크는 그의 책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의 서문에서 "기독교 신앙은 ... 그 본질은 시간의 열매이지만 그 형식 만은 그 시대의 것이다. 전 시대에서 프랑스의 Kern, 말크의 피치, 브라켈의 합리적 종교(Redelijke Godsdienst)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들이 새생활을 일으키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며 ... 따라서 이런 조상들의 업적을 대신할 수 있고, 오늘날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옛 진리를 제시하는 저서가 급히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언급하였다.

71) 이장식 교수는 사우무르(Saumur) 학파야말로 "17세기의 개혁파 교회의 정통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16세기의 개혁파 신학의 성서관을 회복시키려던 학파"였다고 극찬하고 있다(이 장식, 기독교 사상사 2, 327면).

72) 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전가의 부정에 있어서 피스카토르와 연계되었을 뿐아니라, 그를 넘어서 의지는 항상 이성을 따르는데 그 결과 중생에 있어서 의지의

피스카토르(Piscator), 아미랄두스(Amyraldus, +1664)<sup>73)</sup>, 카펠루스(Capellus, +1658)<sup>74)</sup>, 플라카우스(Placaesus)<sup>75)</sup>, 끌로드 빠용(Claude Pajon, +1685)<sup>76)</sup> 등이 여기에 속하는 신학자들이다.

개혁신학의 몰락의 분위기는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장로파들은 웨스트민스터 회의 이후 수에서 뿐만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몰락해 갔으며, 독립파들이 서서히 득세하게 되었다. 이들 독립파들은 이미 16세기에 로버트 브라운, 존슨, 아인스워드와 존 로빈슨 등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으며, 시민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힘과 수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전쟁의 시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였는데, 다양한 사상들과 경향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알미니안적이고 침례교적이며 천년주의적이고 반율법주의적이며 자유사상적인 것들조차도 그 속에서 출구를 찾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종교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기 마련인데, 케이커교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sup>77)</sup>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든 경

전환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 행위라고 가르쳤다(바빙크는 여기서 Gaston Bonet-Maury, Jean Cameron, in: *Etudes de theologie et d'histoire publiees par M.M. les professeurs de la fac. de theol. prot. de Paris en hommage a la fac. de theol. de Mantauban a l'occasion du tricentenaire de sa fondation*, Paris Fischbacher 1901, p.79-117을 인용하고 있다)(바빙크, 같은 책, 184면).

- 73) 그는 *Traite de la predestination*(예정론에 관한 논고)를 썼는데, 표징의 의지(voluntas signi), 특별결정을 위한 은혜의 진지하고 호의적인 제공에 대한 평범한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선택의 결정에 선행시켰다. 바빙크에 의하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칼빈주의 건물 밑에 항론주의적인 것의 초석을 놓았고 신앙에 이르는 인간의 무능을 도덕적인 것으로 약화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바빙크, 같은 책, 같은 면).
- 74) 자신의 저서인 *Arcanum punctationis revelatum*(일점까지의 신비적인 계시, 1624)에서 형체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 점들은 유대학자들을 통하여 고안되어 본문에 첨가되었음을 증명하여 북스도르프(Buxdorf)의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또한 자신의 책 *Critica sacra*(신성한 비판, 1650)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부패되지 않았다고 가르쳤고, *Diatribes de veris et antiquis Hebraeorum literis*(구약 히브리어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1645)에서 사마리아적인 문자형이 히브리어의 사각문자형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가르쳤다(바빙크, 같은 책, 184-85면).
- 75) 그는 *de statu hominis lapsi ante gratiam*(은혜 전의 인간 타락의 상태에 관해서, 1640)을 썼는데, 아담의 죄의 직접적인 전가를 부정하였다(바빙크, 같은 책, 185면).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실재설, 직접전가설, 간접전가설 등이 있는데, 개혁파 신학에서는 직접전가설을 취한다. 이 설에 의하면, 아담은 그 후손에 대하여 자연적 관계와 아울러 언약적 관계를 가지는데, 언약적 관계로 말미암아 아담은 모든 후손의 언약적 대표가 되어 그의 죄가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된다고 한다(벌코프, 기독교신학개론, 132-34면).
- 76) 그는 내적인 은혜의 필연성을 거절하였는데, 그의 입장은 주리에(Jurie)의 *Traite de la nature et de la grace*(자연과 은혜에 관한 논고, 1687)에 의하여 반박되었다.
- 77) 전통과 고백과 교회연합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자마다 자기 자신 위에 기초되어 있고, 성경으로부터 자유하며, 그 자신 안에, 영 안에, 내적인 빛 안에 자신의 종교적 생활과 지식의 원천을 소유하게 되었다. 모든 객관적인 것 즉 성경, 그리스도, 교회, 직임,

향들이 이신론을 위한 길을 닦아 놓은 셈이다. 이신론은 결국 회의주의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회의주의는 철학적 영역에서 데이비드 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바빙크에 의하면, 대략 1750년에 이르면 "개혁주의 신학의 몰락은 어디에서나 확인되었다"고 한다.<sup>78)</sup> 바빙크는 코케이우스주의가 승리를 거둔 이후 1740년부터 1770년까지를 '관용의 시대'(tjperk der Toleranten)라고 불렀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진리의 힘이 거절되고 사람들이 고백을 버리고 성경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었다. 원칙책, 행위언약, 특별한 만족 등과 같은 특별한 개혁주의 교리내용들은 사라지고 다양한 항론주의적이고 쏘시니안주의의 오류들이 아름다운 형태와 성경적이라는 명목하에 등장하게 되었다. 개혁주의 종교의 고백자들은 기껏해야 기존의 것들 안에 안주하는 정도였는데, 더이상 생명력이 없었고 소리를 발하지 못하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 "온 정성으로 옛 개혁주의 교리를 확고히 지켜 재능을 다해 변호하고 좀 더 발전시킨"(die met hart en ziel aan de oude Gereformeerde leer vasthielden en ze met talent verdedigden en verder ontwikkelden) 소수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콤리에(Alex. Comrie), 홀티우스(Nic. Holtius, +1773), 브라헤(J.J.Brache)와 반 덴 호네어트(J.van den Honert), 슐텐스(J.J.Schultens), 알베어띠(Alberti), 아펠리우스(J.C.Appelius) 등이 바로 그들이다.<sup>79)</sup>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1770년 이래 소위 '신신학'(neologie)이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을 터전으로 하여 영국에서는 이신론이, 프랑스에서는 불신앙이, 독일에서는 합리주의가 크게 수확을 얻게 되었다.<sup>80)</sup>

성례는 도외시 되었다. 신자들은 자신의 원리로 살고, 사회 안에서도 자신이 세운 도덕과 습관과 의복 등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였다(바빙크, 같은 책, 186면).

78) 바빙크, 같은 책, 187면.

79) 이들의 주요 저서로는 Comrie : *A. B. C. des geloofs*(신앙의 ABC, 1739), *Eigensch. des zalgm. geloofs*(구원신앙의 특성, 1744), *Verklaring van den Catech.*(요리문답 해설, 1753), *Brief over de rechtvaardigmaking*(칭의에 관한 편지, 1761); Holtius : *Verhandeling over de rechtv. door het geloof*(신앙을 통한 칭의론에 관한 논문, 1750); Brahe: 다섯 개의 발크 조항들을 근거로 한 비평들: *Appellius: Zedig en vrijmoedig onderzoek*(조심스럽고 대담한 연구), *Over het avondmaal*(성만찬에 대해서), *Aanmerkingen over het rechte gebruik van het Evangelie*(복음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논평), *Vervolg van de Aanmerkingen*(논평들의 후편), *De Hervormde leer*(종교개혁 교리) 등이다(바빙크, 같은 책, 188면).

80) 같은 책, 같은 면.



19세기 초기에 이르면 개혁주의 신학은 거의 어디에서나 슬픈 몰락의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이 더 몰락해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깜빡이는 등불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드러내었던 인물들이 몇 있었는데, 할레의 비켈하우스(Wichelhaus, + 1858), 프랑크푸르트의 칼 쥐드호프(Karl Suedhof, +1865), 비인의 뵐(Boehl), 스투트가르트의 잔(A. Zahn), 데트몰드의 텔레만(Theleman), 엘베펠드의 콜부르크(Kohlbrugge, +1875) 등이 바로 그들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이제는 독일에 개혁주의 고백 위에서 있는 그 어떤 신학대학이나 학교도 없다고 한다.<sup>81)</sup>

## 6. 재생의 시도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프린스턴 신학<sup>82)</sup>은 17세기 칼빈주의의 재생이었는데,<sup>83)</sup>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스위스 공동고백에 기록되고 특별히 투레티누스(F. Turretinus)의 담화신학(Theol. Elenctica)을 통하여 보급된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이었다. 여기서는 아키발트 알렉산더(Dr. Archibald Alexander, 1772-1851), 찰스 하지(Dr. Charles Hodge, 1797-1878)가 가르쳤고, 이후에 찰스 하지의 아들 알렉산더 하지(Archibald Alexander Hodge, 1823-1886)가 계승하였다. 당시의 전반적인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전혀 독립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로서 전혀 독립적으로 대학과 함께 거기에 존속하여 교회고백과 결합되어 있었고, 교수들의 특별한 결속이 있었으며<sup>84)</sup>, 신학잡지<sup>85)</sup> 안에서 영예로운 개혁주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우리의 논의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대신교단의 교회선언에서 말한바 “더욱 19세

81) 바빙크, 같은 책, 193면. 바빙크는 여기서 A. Zahn의 *Die Ursachen des Niederganges der ref. Kirche in Deutschl.*(독일 개혁교회의 몰락 원인) (Barmen 1881)과 동일 저자의 *Abriss einer Gesch. der ev. Kirche auf dem europ. Festlande im 19 Jahrh.*(19세기 유럽 대륙의 개신교회 역사) (Stuttgart 3.Aufl. 1893)의 제 12장을 인용하고 있다.

82) 1812년 총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미국 장로교의 최초 신학교요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미국 장로교 신학을 결정하였으며 신학적 입장은 구칼빈주의를 변호하는 소위 ‘구학파’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83) 바빙크, 같은 책, 203면.

84) 당시에 Warfield, Vos, Dick Wilson, Greene 등이 있었다.

85)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기 이후에는 C. 하지, B.B. 워필드, A. 카이퍼, H. 바빙크, J.C. 메첸 등에 의하여 전개 변증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때 언급되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들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의 논의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 Ⅲ. 개혁신학의 적극적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대로 개혁신학은 유럽 대륙에서 잠시 꽃을 피우고는 급속히 몰락해 갔으며, 19세기에 이르러 그 자리를 옮겨 미국에서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재생의 몸부림을 하게 되었다. 이후의 프린스턴의 역사도 그다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긴 신학적인 쟁론 끝에 교단은 분열되고 프린스턴의 일부 교수들이 이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으며,<sup>86)</sup> 분열의 역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페이스(Faith) 신학교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비판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방법은 온 유럽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건너가 그 곳 교회에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태평양을 건너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교회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영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 성경관의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현대 기독교회가 당면한 성경관의 위기를 재천명하고,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정통적인 개혁신학을 잇고 세워 나가려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신학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것의 실천방안으로서의 삼중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성경관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안

대신교단의 교회선언은 "우리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표현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되 온 교회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오류가 없는 표준과 척도로 믿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8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F.Wells, 「프린스턴 신학」, 박용규 역, (서울, 1992)와 김기홍,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1992)에 잘 서술되어 있다.

날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자세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표현인데,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실용주의에 근거한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 방식의 도입<sup>87)</sup>과 발트식의 변증법적인 이해방식의 도입<sup>88)</sup>, 그리고 현금에 이르러 포스터모던적인 이해방식<sup>89)</sup> 등으로 말미암아 그 취하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둘째로, “유일무오(唯一無誤)한”이라는 표현인데, 교회선언에서의 이 표현은 조금 모호한 데가 없지 않다. “성경을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경우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말씀을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등으로 삼중적으로 이해한 발트적인 말씀 이해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가? 통상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 3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다. 성경을 그 용도에 있어서 말할 때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요리문답 제 2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라고 묻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즉 성경을 그 용도에 있어서 말할 때 “유일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교회 직분자들의 임직 서약식에서 대부분의 장로교단에서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87) 영적이며 초월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적이며 내재적이며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 이 같은 방식은 자신들이 가진 전제로 말미암아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의미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만다.

88) 골든 H. 클락은 신정통주의를 계시의 객관성을 부인함으로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회의주의라고 경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존의 기독교 용어로 교묘하게 가리우기 때문에 “음흉하다”고 말하였다(“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n :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362면).

89) 오늘날 과학이 스스로 그 한계를 자인하게 되자 그동안 과학주의에 편승했던 신학이 과학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신학의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겠다는 선언하는 자세인데, 종래에 성경을 과학적인 용어로 재해석하려 했던 방식을 반성하고 성경을 성경 자체 내의 어법으로 해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역시 그 전제는 종래의 전통적인 성경관을 버린 것이다(참조, F.B.Burnham 편, 포스트모던 신학, 세계신학연구원, 서울 1990; 홍정수, 베짜는 하나님, 서울 1991; 홍정수, 포스트모던 예수, 서울 1992).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란 말은 성경의 용도 즉 신앙과 행위와 관계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신교단의 교회선언에서는 그 용처(用處)가 언급되지 않은 채 “유일무오한”이라는 표현을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표현되어야 제대로 뜻이 맞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무오한” 법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일”한 법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각 시대마다 성경 외에 성경과 병행하여 또 다른 권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차단하는 표현이며,<sup>90)</sup> “무오”한 법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을 권위의 근거로 받는다 고 하면서도 성경의 오류가능성을 말함으로 권위의 바탕을 헐어버리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하는 표현이다. 현금이 있어서 침단을 달리는 기독교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하거나, 말씀을 상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비중을 격감시키고 있다. 또한 성경을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하면서도 무오한 법칙으로 삼기보다는 여러 가능한 권위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거나,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오늘날에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 때의 슬로건은 새롭게 제창되어야 하되,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제시되어야 한다. 오직 성경인데, 어떤 이해방식에 의한 성경인가? 성경에 대한 해석방식을 간과한 성경 주장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다. 바로 이 면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개혁신학의 바른 계보를 중히 여기고 그 주된 선을 잇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며, 그런 해석방식에 따른 ‘오직 성경!’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이제 더이상 고집으로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개혁신학의 바른 전통에 대한 충실한 연구와 그 전통에 입각한 성경해석 방식의 체득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 슬로건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90)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바로 그것이었다.

## 2. 총체적 신학의 제안

여기서 굳이 총체적 신학이라고 이름한 것은 오늘날의 신학이 너무나 세분화된 데 대하여 반성적으로 명명해 본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전공분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므로 어떤 한 전공분야가 마치 지식의 전부를 가진듯이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신학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변증학의 경향은 총체적 변증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을 제대로 변증하려면 신학만으로는 되지 않고, 철학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심지어 예술 방면까지를 총망라하는 총체적 변증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전공별로 나타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때문에 목회자들은 신학교 재학 중에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길러 놓지 않았기에 흔히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목회현장에서 조직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는 "역사신학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내지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들어 가면서도 그 위치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적지 않은 경우에 성경을 오묘하게 해석해서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실상은 이미 교회사 속에 존재했던 이단의 가르침을 재현하게도 된다. 그러한 위험을 조직신학에서 누차 경고했는데도 재현하게 될 수가 있다. 부분은 아는데 전체는 모를 때, 오늘은 아는데 과거는 모를 때, 본인은 성경에 충실하다고 말하나 본의 아니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신학교에서의 강의가 더이상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비록 각 전공별로 강의를 진행되더라도 신학의 전분야가 함께 녹아져서 그 과목의 특징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의를 되어야 할 것이며, 신학적 사고 자체가 총체적이 되어야 하겠다. 즉 성경신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이 그 골격을 이루며 실천신학이 그 구체적 삶을 조정하고 통제해 줄 그런 총체적 신학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신학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바가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통해서 그 교리적 전체성과 교회사적 전체성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실천신학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회의 자리에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교수진간의 보다 폭넓은 학문적 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감히 제안하게 된다. 대외적인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도 더이상 단독 논쟁으로는 되지 않는다. 조직

신학대 조직신학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 학교의 교수진이 일제히 입을 모아서 각 분야에서 발언을 해 주어야 제대로 대응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신학에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신학작업이 단편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 3. 삼중적 과제

개혁신학을 바르게 전수하려는 우리의 과제는 삼중적이다. 즉 개혁신학의 전통을 바로 붙잡는 일과 그 전통에 입각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제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개혁신학의 전통을 바로 붙잡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다. 아예 전통적인 입장을 저버리고 전통과는 자유로운 자세를 표방하는 신학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서 고자 표명하면서도 그 전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소개받지도 못한 우리의 현실에 있다. 위에서도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우리의 신학은 ...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 에 의하여 전개 변증되어온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 신학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소개받지도 못한 형편이다. 이런 처지는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곧 이어 “개혁파 제 신조”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선언의 첫 머리에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언급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기준으로 여길만큼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빈곤한 형편을 자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건실한 탐구와 전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그 전통에 입각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일이다. 전통이 전통으로만 남게 되면 의미가 없다. 개혁신학의 바른 전통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무오한” 척도로 믿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설교하며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오늘날 다양하게 개발된 해석방식들에 대하여 그 적용타당성 여부를 밝히며, 앞서 간 신앙선배들이 남긴 터전 위에

서서 그들을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간 신앙선배들의 해석과 설교를 제대로 전수하는 일도 쉽지 않으나, 만약 우리가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 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세째로,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다. 첫째와 둘째는 바로 이 세째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앞서간 신앙 선배 중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학전통과 그에 입각한 바른 교훈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한다.

## IV. 결 론

지금껏 우리는 '개혁신학-그 전통과 적극적 가능성'이란 주제로 생각하여 왔다. 먼저, 개혁신학의 전통을 논하면서 개혁신학의 기원과 발전, 핵심이 되는 "17세기 개혁과 신학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그 몰락과 재생의 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혁신학의 적극적 가능성을 논하면서 성경관의 위기, 총체적 신학의 제안 및 삼중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위에서 대강 살펴본대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표방하는바 신학전통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표방하는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아 그 고귀한 신학전통 자체가 몰락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빈약하고 초라한 도구를 가지고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맥을 캐내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줄 확신한다.

## 참 고 문 헌

- A.Zahn, Die Ursachen des Niederganges der reformierten Kirche in Deutschland, Barmen 1881
- \_\_\_\_\_. Abriss einer Geschichte der evangelischen Kirche auf dem europaeischen Festlande im 19. Jahrhundert, Stuttgart 3.Aufl. 1893
- H.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 Kampen:J.H.Bos, 1906.
-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아멘, 1992.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4.
- J.L.니브/O.W.하이크,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박윤선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영음사, 1989.
- Fr.B.번햄 편, 포스트모던 신학, 세계신학연구원 역, 서울:조명문화사, 1990.
- L.벌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성광문화사, 1974, 1991(23쇄)
- D.F.웰스, 프린스톤 신학, 박용규 역, 서울:엠마오, 1992.
- \_\_\_\_\_.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박용규 역, 서울:엠마오, 1992.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2,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1983(7판).
- 이장식 편역, 기독교신조사 II, 서울:컨콜디아사, 1980.
- G.H.클락,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0.
- 홍정수, 베짜는 하나님, 서울:조명문화사, 1991.
- \_\_\_\_\_. 포스트모던 예수, 서울:조명문화사, 1992.
- 김영규, "역사적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1995.2.7), 미간 논문.
- \_\_\_\_\_.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판", 미간 논문.